

이은무 선교사 선교칼럼(5)

제자를 삼는 제자

선교지에서 지도력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일 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설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저들이 주인 인식을 가지고 사역을 스스로 이끌어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살펴 주고 세워주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 지도력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계나 자신의 입지만을 높이려는 정치계나 사회적 지도력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경제도 정치나 사회제도고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저들은 보면서 이기적인 지도력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의 연속인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교는 어떠해야 하는가? 선교 현장은 어떠 한가? 교회들은 어떤 가?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기질이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기대했던 인간의 지배 욕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므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교회나 성도들은 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은 주님의 리더십을 표현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6-8).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하여 희생하므로 남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남이 세워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구약의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는 좋은 멘토가 되어 그를 세워 더 큰 인물로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리자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신앙의 모델과 사역의 이양을 계획해 왔다.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모델이었다.

모세는 누가 그의 뒤를 이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있다. 그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증가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다. 그는 회중 가운데 이 무리를 이끌 “한 사람”, 그리고 저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민수기 27:16). 그 때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 그를 데려 다가 안수하고 뒤를 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즉시 그를 회중 앞에서 이 막중한 일은 그에게 “위탁”을 위한

안수식을 거행하였다 (민수기 27:18-19).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한 14:12).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일임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위대한 스승이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멘토링 사역에서나 선교지 사역에서 ‘제자를 삼는 일’과 ‘제자를 훈련시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은 디모데후서 2:2의 말씀처럼 “또 네가(디모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바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디모데가 삼은 제자)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또 다른 제자)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바울에서부터 또 다른 제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은 곧 제자훈련의 연속성이 곧 지도력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헤드릭스는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 놓게 되는데 그 유산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도력은 곧 ‘영향력’이라는 말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전수하는 것을 인류학적 교육의 개념이다. 그래서 교육 인류학자인 조지 스피ندر (George D. Spindler)는 교육의 정의를 “자신의 가치관과 문화를 피 교육자에게 전수 (Transmitting)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은 말과 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모범이 별다른 인식없이 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 과정은 리더십의 구조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형상화되는 것이고, 그 형상화는 모델링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는 것이다.